

세계와 어깨를 견주는 우리 시대의 참 안전인

제36호 (주)한독약품 남익현 팀장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참 따
사롭다. 한 겨울의 차디찬 바람 속에 스며든 햇살이
라 더욱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언 손을 녹여주는 한겨울 햇살처럼 우리네 현장에도 근로자들
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안전
관리자가 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주)한독약품 HSE팀의 남익현 팀장이다.

정해진 규칙이나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킨다

1954년 창업 이래 우수 의약품 공급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력 질주해온 (주)한독약품은 금년
부터 합작사인 아벤티스 파마와 사노피의 합병으로 국내 제약업계 매출 1위 달성을 예고하는 내실
있는 기업이다. 이곳에서 HSE 팀장으로 안전, 보건, 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남익현 팀장은 나보다는

정해진 규칙이나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킨다.




남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안전이
라는 업에 매력을 느껴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 1993년부터 안전관리자의 길에 발을 들여놓
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정해진 규칙이나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킨다' 라
고 강조하는 남익현 팀장은 기본 수칙준수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Zero화시키고, 그로 인해 지
적되는 이상이나 개선사항을 근로자와 함께 제안· 개
선토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의식도 함께 향상시킨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 부족이나 이해관계자
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계속된 설득과 노
력으로 이를 개선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작업에 임할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는 전형적인 안전관리자의 모습 그대로를 담고 있다.
특히, 공정 중에 취급하는 일부 고활성 의약품(High Activity Pharmaceuticals)으로 인한 유해성을 차
단하기 위해 IH(Industrial Hygiene)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 위험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과 쾌
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다.

올해에는 5월로 계획되어 있는 Sanofi-Aventis Global의 HSE Audit를 위해 그 동안의 활동
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KOSHA/OHSAS 18001, ISO 14001의 통합시
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일터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
는 (주)한독약품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한다.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어학과 운동에 더욱 투자할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밝힌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쉬지않고 정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 안
전인이 가야 할 참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성호연 기자〉